

순천만 살리자면서…市-시민단체, 보전 방안 갈등

시민단체, 입장료 주변마을 지원 조례 청구

市, 기존 조례와 중복 주민 갈등 유발 반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순천지역에서 정작 순천만 보전 방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순천시가 갈등을 겪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민발의를 거쳐 ‘순천만 보전 주민조례 청구’를 추진하자 순천시는 조례에 정한 위원회 등이 기존의 조례와 중복되는데다 사업비 지원을 싸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순천환경운동연합과 순천YMCA

등 30여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순천만 지키기 시민회의’는 19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난달 말부터 ‘순천만 보전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서명을 받은 결과 주민발의 법적 충족수인 5218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이날 말까지 추가로 시민 서명을 받은 뒤 순천시에 조례 발의를 접수하기로 했다.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시의회 회

기 중에 조례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순천만 입장수입의 일부로 순천만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순천만갯벌습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위원회’를 구성해 입장료 징수액의 30%를 순천만 주변 마을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조례가 순천만과 갯벌습지 보전을 위한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표현해 사업 선정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의회에 수정 발의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에서 사업내용과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만갯벌습지 주

변지역 지원사업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순천시는 기존 국내와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자연생태위원회’와 ‘순천만갯벌습지보존지역위원회’와 중복되고 있다는 이유다.

더욱이 위원 구성에서 모두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 이상을 환경시민단체 임원과 지역주민을 임명하도록 한 점에 대해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고 시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민 지원사업이나 지역을 정하는 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비를 앞에 두고 각 마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이러한 의견을 정리해 조례의 의결 권한이 있는 시의회에 시민발의의 조례안을 수정해서 처리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처럼 ‘순천만을 살리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법을 담은 조례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심해 앞으로 의회에 상정될 조례안 처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시민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순천만의 종합적인 보전책과 관련해 순천시가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조만간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평양예술단 박편무 공연

평양예술단은 21일 저녁 7시 30분 고흥문화회관에서 노래와 장구춤, 칼춤 등 다양한 북한 예술공연을 무료로 선보인다. 평양예술단의 박편무 공연 모습.

<고흥군 제공>

여수시, 겨울철 관광객 유치 나섰다

해남이·야경 콘텐츠 마련

민·관 합동 팸투어 실시

1000만 관광객 시대 개막에 주력하고 있는 여수시가 겨울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여수시는 19일 “겨울에 접어들면서 겨울관광 상품 홍보를 위한 민·관 합동 팸투어와 집중 마케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해남이·해돋이·여수 밤바다 등 겨울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의 홍보채널을 동원해 여수의 아름다운 겨울여행지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또 여수시와 여수관광협회, 음식 및 숙박업체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공동 마케팅

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관광협회 및 대표 여행사를 방문해 세일즈 마케팅에 나시고 문화관광 해설가 선진지 마케팅 홍보를 경남·북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역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여행사 초청 팸투어와 세미나 등도 진행한다.

시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철도관광 상품인 남도해양관광열차(S-train) 관련 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부산·경남 여행사 상품개발자 28명을 대상으로 갖기로 했다.

오는 29~30일에는 삼산면사무소에서 여수해양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시민 120여명을 대상으로 거문도·백도 관광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전북



안녕·풍년 기원 용당기놀이 재연

제2회 무장 칠거리 용당기놀이 재연 행사가 19일 고창군 무장면 일원에서 무장농악단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당기놀이는 매년 칠월 칠석때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빌던 무장면의 전통 민속놀이로, 일제시대 사라진 것을 지난해부터 재연하고 있다.

<고창군 제공>

전주 교동, 문화마을로 재탄생

서민밀집 자만·옥류·승암마을 대대적 정비사업

전주시 교동의 서민밀집 위험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 낙후되고 지저분한 마을 이미지를 탈피하고 문화마을로 재탄생을 앞두고 있다.

19일 오후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주변 야와 무대에서 송하진 전주시장, 시의원,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경과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서민밀집지역 정비공사 준공을 앞두고 교동의 숙원사업인 고지대 재해 위험지역 해소와 도로·하수도 등 재정비로 시민불편 해소에 대한 사업 경과보고 및 사업 추진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 앞서 자만·옥류·승암마

을 주민들은 교동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 고지대인 마을을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마을의 초석을 마련해 준 전주시장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완산구는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사업에서 소외된 재난안전 사각지역인 교동 일대의 자만·옥류·승암마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해 지난해 4월 소방방재청에 정비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후 국비보조금 1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원이 이 사업에 책정돼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절개지 및 비탈

면 보강 등 총 161개소의 정비가 목적이었지만 도시환경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5개의 공정을 추가해 186개소의 단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절개지 및 비탈면보강 45개소, 배수조정비 42개소, 안전간설치 48개소(1249m), 골목길 정비 42개소(4211m) 등 모든 공사는 이날 말 완료될 예정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자만·옥류·승암 마을은 고지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재해위험이 있어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이 지속됐다”며 “주민들의 불편 및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여수 문예회관 15년만에 재공사

직장어린이집 건축도

공사중단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던 여수시 문예회관이 15년만에 본격적인 재공사에 들어갔다.

여수시는 19일 오후 여수시청 1층 사 동문 주차장에서 여수시 문예회관과 직장어린이집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충석 시장과 여수시의회 박정채 의장,송대수 도의원(전 도의회 부의장) 등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립국악단의 식전공연과 경과보고,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

여수시는 지난 1998년 2월 공사가 중단된 문예회관에 대해 사업비 49억6000만원을 들여 지상1층·지하2층 연면적 2000여㎡ 규모로 새롭게 건립한다.

이와 함께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지상3층·지하1층 규모로 보육실, 특별활동실, 다목적 강당, 식당, 장난감 나라 등을 갖춘 직장어린이집을 1층사 옆 전 시립테니스장 부지에 건축한다.

김충석 시장은 축사에서 “3여 통합 등의 행정여건 변화와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중단됐던 문예회관의 공사재개로 진정한 3여 통합정신이 계승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곡성심청한우’ 브랜드 출시

영농조합법인 발족

곡성군은 19일 “지난 18일 청정수도 곡성을 대표하는 한우 미경산우 브랜드인 ‘곡성심청한우’ 브랜드를 출시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브랜드사업추진단인 ‘곡성심청정정한우영농조합법인’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허남석 곡성군수와 곡성군 의회 의원을 비롯, 브랜드 참여농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미경산우는 암소 중 한번도 출산을 하지 않고 사육된 소를 말하며 ‘곡성심청한우’는 36개월 이하의 미경산우를 브랜드육으로 유통하게 된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단 신

순창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평가’ 우수기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 23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사전대비 평가’에서 순창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우려지역 20개소와 재해위험개

선지구 4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소, 대규모 공사장 7개소 등 재해 취약시설에 대해 현장책임관 책임하에 예방 활동을 수시로 실시해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전주시-완주군 관할구역 경계조정 확정

전북혁신도시 출범에 따른 전주시와 완주군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으로 완주군이 40만㎡가량 커졌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전주시 관할 49만3117㎡를 완주군으로 편입하고, 완주군 관할 9만4906㎡를 전주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

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경계변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촌진흥청은 전주시, 국립축산과학원은 완주군 관할이 됐다.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전북혁신도시(총 990만여㎡)의 3분의 2는 완주지역에, 나머지는 전주시지역에 속해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도교육청, 22일까지 전기고등학교 원서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14학년도 전기고등학교 원서를 22일까지 51개 고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발 인원은 특목고 3곳(전북외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530명, 자사고 2곳(군산중앙고, 남성고) 630명, 특성화고 26곳 4,356명, 대안학교 3곳(세인고, 지평선고, 푸른꿈고)

140명, 일반고 전문계열 13곳 657명, 일반고 예체계열 4곳 332명 등 모두 6645명이다.

산업체 학교 3곳도 81명을 모집한다. 다른 시·도의 전기고에 원서를 낸 적이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합격자는 12월 2일 발표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 이평면 배들평야 60ha 유채씨 파종

동진관광관진흥협회(협회장 이동진)는 최근 이평면 배들평야 60ha에 유채씨를 파종했다.

이곳은 정읍시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삼이 생산되는 기름진 옥토로, 협회는 수확을 끝낸 배들평야에 지난 15일까지 유채씨(품종 탐미) 3200kg를 뿌렸다.

파종을 위해 협회는 44농가 공동작업반을 구성했고, 파종 후에는 공동으로 밭가름 주기도 마쳤다.

한편 이평면에서도 최근 유채꽃 경관지구 진입도로인 이평주유소에서 만석보까지 4km의 가장자리에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유채씨를 뿌렸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